“계란호황, 육계불황”

최근 양계업계에 태풍의 눈으로 놓친 것이 UR이라는 두말자. UR은 물론 심각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여 당할 수는 없지 않는가? 더욱 분할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미래에 대한 가격전망을 한다는 것이 항상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든다. 언제 입주하면 시세가 얼마 될 것이냐 언제 마음놓고 입주하려고 해야 되는데 항상 연계 시세가 나쁘니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되풀이 되는 상황으로 끝을 맺게 되곤 한다. 양계업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업이고 보니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황이 와도 계속 해야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불황기에는 피해를 줄여 나가고 호황기에 이익을 많이 올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가격전망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함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소신을 갖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료를 중심으로한 4/4분기 내지 91년도 가격호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과장

“10월 약세이후 전반적으로 호황세 지속될 듯”
계란시장은 근래 보고 드문 호황이 지속되는 시점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수출산면 분위기로 인해 사업주자에 대한 혼선이 야기되어 안정적인 계란산업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9월 들어 유사이래 최고의 시세인 특란 80원대를 진입하는, 그야말로 고난가시대
표 1. 연도별 초생추 시료 생산량 및 실용계 병아리생산 추정수수
(단위: 톤, 천)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초생추시료 생산량</th>
<th>병아리생산 수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88</td>
<td>'89</td>
</tr>
<tr>
<td>1</td>
<td>2,957</td>
<td>2,628</td>
</tr>
<tr>
<td>2</td>
<td>2,990</td>
<td>3,390</td>
</tr>
<tr>
<td>3</td>
<td>4,812</td>
<td>5,944</td>
</tr>
<tr>
<td>4</td>
<td>5,183</td>
<td>5,975</td>
</tr>
<tr>
<td>5</td>
<td>4,365</td>
<td>5,553</td>
</tr>
<tr>
<td>6</td>
<td>3,120</td>
<td>4,654</td>
</tr>
<tr>
<td>7</td>
<td>2,448</td>
<td>4,184</td>
</tr>
<tr>
<td>8</td>
<td>2,675</td>
<td>3,899</td>
</tr>
<tr>
<td>9</td>
<td>3,212</td>
<td>4,062</td>
</tr>
<tr>
<td>10</td>
<td>3,446</td>
<td>3,644</td>
</tr>
<tr>
<td>11</td>
<td>3,790</td>
<td>3,761</td>
</tr>
<tr>
<td>12</td>
<td>3,342</td>
<td>3,679</td>
</tr>
<tr>
<td>계</td>
<td>42,281</td>
<td>51,355</td>
</tr>
</tbody>
</table>

표 2. 병아리 시세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h>10</th>
<th>11</th>
<th>12</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산</td>
<td>88</td>
<td>358</td>
<td>397</td>
<td>406</td>
<td>394</td>
<td>382</td>
<td>329</td>
<td>315</td>
<td>357</td>
<td>393</td>
<td>416</td>
<td>395</td>
<td>441</td>
</tr>
<tr>
<td>환</td>
<td>89</td>
<td>533</td>
<td>545</td>
<td>551</td>
<td>560</td>
<td>544</td>
<td>493</td>
<td>466</td>
<td>443</td>
<td>404</td>
<td>377</td>
<td>411</td>
<td>483</td>
</tr>
<tr>
<td>용</td>
<td>90</td>
<td>548</td>
<td>568</td>
<td>585</td>
<td>575</td>
<td>576</td>
<td>577</td>
<td>576</td>
<td>576</td>
<td>582</td>
<td></td>
<td></td>
<td></td>
</tr>
<tr>
<td>육용</td>
<td>88</td>
<td>222</td>
<td>289</td>
<td>231</td>
<td>123</td>
<td>149</td>
<td>166</td>
<td>150</td>
<td>212</td>
<td>272</td>
<td>260</td>
<td>338</td>
<td>348</td>
</tr>
<tr>
<td>윤</td>
<td>89</td>
<td>362</td>
<td>350</td>
<td>276</td>
<td>340</td>
<td>256</td>
<td>363</td>
<td>360</td>
<td>357</td>
<td>361</td>
<td>350</td>
<td>376</td>
<td>380</td>
</tr>
<tr>
<td>문</td>
<td>90</td>
<td>403</td>
<td>405</td>
<td>408</td>
<td>419</td>
<td>427</td>
<td>424</td>
<td>408</td>
<td>415</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월간간행 제1990.10월호  41
생산잠재력은 내년 상반기까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병아리값 강세가 지속될 경우 다소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내용을 종합해 보면 4/4분기 계란값은 생산측면에서는 추석 이후 약간의 과잉소지는 내포하고 있으나 가격인하와 더불어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기간 생산비를 옮기는 정도의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같은 계란값 호황과 더불어 병아리값 또한 600원을 상회하는 고가가 지속되면서 몰량부족이 급속히 계속될 전망이다.

91년도 계란값은 급격로 보다는 하락세로서 생산량 또한 꾸준한 증가세 양상되어 병아리 입축에 신중을 기하고 환우는 기급적 의미고 신체편입으로 후보계를 대처해 가면서 계란값 안정을 위해 합심해 야 되었다.

□ 육계전망

"연말년시 육계황황 조짐 우려"

금년도 육계값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병아리값이다. 여기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한내내 400원을 옮기는 시세가 형성됨에 따라 생산잠재력에서 30% 가까운 증가요인을 발생시켜 육계값은 급속도로 보기에는 좋은듯 싶으나 생산비가 위반 가능하지 않으나 그다지 그 변화를 통한 농부의 마음이 아닌가 싶다. 아직까지도 병아리 값은 여전히 강세가 지속되고 더욱이 내년도 병아리 생산잠재력까지 지나가 육계가격 첨가는 언제 벗어날지, 오리무중인 상태로 보여진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4분기 이후 병아리생산 잠재력이

표 3. 산란용 종계(P.S)입식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88</th>
<th>'89</th>
<th>'90</th>
</tr>
</thead>
<tbody>
<tr>
<td></td>
<td>계</td>
<td>국산수입</td>
<td>계</td>
</tr>
<tr>
<td>1</td>
<td>51,988</td>
<td>42,937</td>
<td>42,000</td>
</tr>
<tr>
<td>2</td>
<td>21,500</td>
<td>33,147</td>
<td>7,000</td>
</tr>
<tr>
<td>3</td>
<td>16,077</td>
<td>23,475</td>
<td>4,740</td>
</tr>
<tr>
<td>4</td>
<td>27,923</td>
<td>41,646</td>
<td>41,646</td>
</tr>
<tr>
<td>5</td>
<td>65,624</td>
<td>46,067</td>
<td>10,000</td>
</tr>
<tr>
<td>6</td>
<td>38,425</td>
<td>14,500</td>
<td>13,900</td>
</tr>
<tr>
<td>7</td>
<td>8,325</td>
<td>2,700</td>
<td>21,325</td>
</tr>
<tr>
<td>8</td>
<td>41,944</td>
<td>14,750</td>
<td>14,750</td>
</tr>
<tr>
<td>9</td>
<td>2,885</td>
<td>13,350</td>
<td>54,100</td>
</tr>
<tr>
<td>10</td>
<td>23,952</td>
<td>41,100</td>
<td>41,100</td>
</tr>
<tr>
<td>11</td>
<td>49,372</td>
<td>40,550</td>
<td>40,550</td>
</tr>
<tr>
<td>12</td>
<td>55,590</td>
<td>33,201</td>
<td>33,201</td>
</tr>
<tr>
<td>계</td>
<td>403,592</td>
<td>347,423</td>
<td>152,525</td>
</tr>
</tbody>
</table>

표 4. 육계실용계 잠재력

<table>
<thead>
<tr>
<th>월별</th>
<th>88</th>
<th>89</th>
<th>90</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1,597</td>
<td>22,532</td>
<td>20,471</td>
</tr>
<tr>
<td>2</td>
<td>22,637</td>
<td>23,373</td>
<td>20,983</td>
</tr>
<tr>
<td>3</td>
<td>23,710</td>
<td>24,283</td>
<td>22,136</td>
</tr>
<tr>
<td>4</td>
<td>24,983</td>
<td>25,258</td>
<td>23,957</td>
</tr>
<tr>
<td>5</td>
<td>25,471</td>
<td>25,477</td>
<td>24,435</td>
</tr>
<tr>
<td>6</td>
<td>24,665</td>
<td>22,321</td>
<td>24,914</td>
</tr>
<tr>
<td>7</td>
<td>22,022</td>
<td>23,191</td>
<td>24,509</td>
</tr>
<tr>
<td>8</td>
<td>21,192</td>
<td>20,542</td>
<td>23,010</td>
</tr>
<tr>
<td>9</td>
<td>19,813</td>
<td>18,845</td>
<td>21,919</td>
</tr>
<tr>
<td>10</td>
<td>19,618</td>
<td>19,087</td>
<td>22,117</td>
</tr>
<tr>
<td>11</td>
<td>20,824</td>
<td>20,072</td>
<td>23,615</td>
</tr>
<tr>
<td>12</td>
<td>20,082</td>
<td>20,125</td>
<td>25,052</td>
</tr>
<tr>
<td>계</td>
<td>266,614</td>
<td>265,106</td>
<td>267,758</td>
</tr>
</tbody>
</table>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고 병아리의 실험화가 전반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연말 병아리의 기 점으로 해서 20~30% 가까운 증 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연말병아리
입수의 과정으로 인한 연말 육계
값 불량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
나 최근의 입수요구로 보아서는
아마서 병아리가 부족한 상황이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본격적인 육계불량의 전초기가 되 지 않을까 더욱 열려있다.
또한 표 5의 육계에 임식은 숫
자 그대로 보아서도 걱정이 앞설
정도로 입수요구가 극에 달하고
있어 내년도 병아리값은 물론 육계
값도 감감하게 느껴진다. 이 표
를 보면서 부화생산의 효율이 향
승한 재배임식의 영가가 얼마나 고
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GSP에서 생산된 물량만
보더라도 적정수수 이상인 반면,
수입품계가 8월까지 32만주를 옮
도는 숫자로 작년 총수입물량의 3
배에 이르고 있다. 수입물량의 증
가요인은 병아리값 상승으로 인한
수요증가가 국내 재배 PS 가격이 수입
PS 가격보다 50% 정도 높은데
따른 수입물량이 증가한 것 같다.
이같은 현상은 실용계 병아리값
높으면물량이 증가하는 요인과
특히 위치로 생각된다.
그러나 금년도 소비성향은
30% 가까운 소비성장이 이루어
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외식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표 5. 육계종계(PS) 임식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88</th>
<th>'89</th>
<th>'90</th>
</tr>
</thead>
<tbody>
<tr>
<td></td>
<td>계</td>
<td>국산</td>
<td>수입</td>
</tr>
<tr>
<td>1</td>
<td>131,000</td>
<td>85,386</td>
<td>85,386</td>
</tr>
<tr>
<td>2</td>
<td>177,891</td>
<td>131,100</td>
<td>62,400</td>
</tr>
<tr>
<td>3</td>
<td>297,766</td>
<td>248,635</td>
<td>30,300</td>
</tr>
<tr>
<td>4</td>
<td>267,400</td>
<td>210,198</td>
<td>25,800</td>
</tr>
<tr>
<td>5</td>
<td>198,910</td>
<td>222,005</td>
<td>222,005</td>
</tr>
<tr>
<td>6</td>
<td>232,000</td>
<td>165,180</td>
<td>24,900</td>
</tr>
<tr>
<td>7</td>
<td>297,510</td>
<td>259,769</td>
<td>259,769</td>
</tr>
<tr>
<td>8</td>
<td>189,250</td>
<td>281,572</td>
<td>281,572</td>
</tr>
<tr>
<td>9</td>
<td>240,257</td>
<td>230,865</td>
<td>15,900</td>
</tr>
<tr>
<td>10</td>
<td>210,762</td>
<td>210,300</td>
<td>16,800</td>
</tr>
<tr>
<td>11</td>
<td>111,278</td>
<td>200,750</td>
<td>8,500</td>
</tr>
<tr>
<td>12</td>
<td>106,518</td>
<td>178,434</td>
<td>6,000</td>
</tr>
<tr>
<td>계</td>
<td>2,462,542</td>
<td>2,432,194</td>
<td>129,600</td>
</tr>
</tbody>
</table>